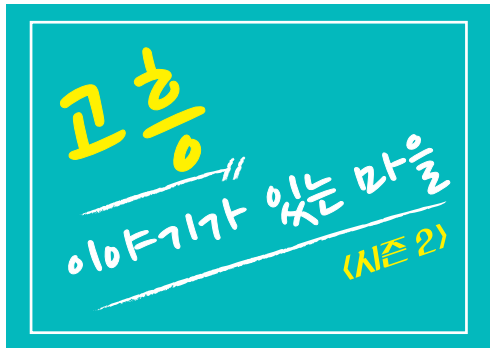




4 도덕면 가야리 성항마을

오랜 세월 척박했던 땅. 그만큼 사람들의 세상 살이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강하고 질긴 태도와 능력으로써만 세상은 살아지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이야기는 쌓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산한 삶을 이어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밝고 슬프고 아름답고 비극적이어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설화는 그렇게 오래도록 쌓여 전해져오고 있다. 전남 고흥군을 다시 찾는 이유다. 지난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고흥의 이곳저곳 땅을 밟으며 다양한 이들을 만난 스포츠동아는 올해에도 그곳으로 간다. 사람들이 전하는 오랜 삶의 또렷한 흔적을 확인해가며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려 한다. 매달 두 차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다.



어느 부자가 과욕을 부리다 큰 화를 당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성항마을을 전경. 벼와 마늘농사가 풍년을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고흥(전남)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고흥 도덕면 가야리 성항마을 가는길



욕심 많은 김부자 소동 시주에 뿔난 스님 마을 앞 바다 막으면 떼돈 번다고 꼬드쳐 거북이 물길 막은 김부자 결국 천벌 받아 지금은 간척한 땅에 곡식들이 무럭무럭

세상은 때로 이야기에 기대 그 형상을 드러낸다.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성항마을을 역시 그렇다.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드넓은 평지에서 먹거리를 거두며 사람들은 살고 있다. 하지만 마을은 오래 전 바다에 둘러싸여 반도의 형상을 이뤘다. 바다가 마을을 품어내고 사람들에게는 바지락과 낙지 등을 안겨줬다.

바다를 메우고 새롭게 다져진 땅. 이곳은 간척지다. 물을 막아 땅을 만들기 전 거북이가 물을 찾아가는 모습을 닮았다는 마을에선 이제 쌀과 마늘농사가 풍성하다. 그러기까지 마을에선 부자가 몇 되지 않았다. 그 부자의 집에서 머슴을 살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모았다.

●부자의 욕심이 부른 화(禍)

그 부자 중 한 사람, 김부자. 어쩌나 욕심이 과한지 가뭄이 극심해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

에게 고리의 빛으로 고통했다. 머슴들의 세경도 쥐꼬리만큼 주었다.

어느날 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김부자의 고래등 같은 집을 찾았다. 시주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인이 쌀을 조금 퍼가지고 나가려 했지만 김부자에게 들키고 말았다. 김부자는 쌀 대신 소똥을 스님의 시주 보따리에 퍼부었다.

“똥도 약이 된다 하지 않소?” 스님은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고맙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렇게 귀한 시주를 해주셨으니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심 많은 김부자,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알을 회반덕거렸다.

“이 마을 앞 바다를 막으시오, 그러면 큰돈을 벌게 될 것이요.”

몇날 며칠 공리 끝에 김부자는 머슴들을 동원하기로 했다.

“바다로 가서 독을 만들어라” 머슴들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바닷가로 내쫓겼다. 머슴들의 노동으로 독은 완성됐고 바닷물은 막혔다. 김부자는 곧 떼돈을 벌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어 도둑이 들어 곳간의 식량을 모조리 가져가고 말았다. 아들은 노름에 빠져 아비 몰래 집문서를 빼앗기고 말았다. 농사 또한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결국 시름시름 앓던 김부자의 부인마저 숨을 거뒀다.

다시 김부자를 찾아온 스님. 김부자는 스님의 다리를 붙잡고 통사정했다.

“스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스님은 “과욕을 부리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는 법. 거북이가 물을 찾으러 가는데 그 물길을 막았으니 인과응보이니라.”

●거북의 물...소리의 삶

거북이 물을 찾아 가는 길목을 인간의 욕심이 막아놓았으니, 그들 인간에게 하늘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웃에 대한 배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실제로 성항마을 앞 너른 들판에는 길이 약 200여 미터의 독이 있다. 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간척 이후 가난한 삶이 더 쪼그라들지는 않았다. 마을 김영옥(67) 이장은 마을 공동저장고 옥상으로 취재진을 데려가더니 “바다

를 막고 나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면서 거북이의 등처럼 굽은 방죽을 가리켰다. 그 멀리 너른 땅을 이룬 간척은 13만2000m²(약 4만여평)의 규모로 이뤄졌다.

사람들은 바닷물을 막기 위해 독을 세웠다. 당초 독은 높게 쌓였다. 사람들은 다시 독의 높이를 낮췄다.

“독이 높아 바람을 제대로 맞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풍 대신 대지의 바람을, 햇볕과 적절한 습기를 머금으며 자라나야 할 들판의 먹거리를 위한 조치였다. 곳곳의 푸르름으로 이웃 마을의 경제 일부를 책임지는 마늘밭도 사람들의 그런 이해와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흥(전남)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설화 참조 및 인용: ‘거북이의 물길을 막은 욕심’ 안오일, ‘고흥군 설화 동화’ 중)

2 설화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口傳)돼 내려오는 이야기. 신화와 전설, 민담을 포괄한다.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민간의 생활사와 풍습, 권선징악의 가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

관중 야유에 손가락 욕...푸이그, 모욕죄가 아닌 이유



Sports & Law Story

양준진 부장검사
법무부 법질서전진화과장

대상 특정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 힘들어 1경기 출장정지 징계...선수 매너의 문제만약 심판 향해 그랬을 땐 법적 처벌 가능

어느 종목이건, 어느 리그건 ‘악동’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다. 메이저리그(MLB)에선 LA 다저스 야시엘 푸이그가 돌궂개라면 서러워할 것이다. 그런 푸이그가 얼마 전 또 한번 철부지 같은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14일(한국시간)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벌어진 클리블랜드와의 원정경기. 푸이그는 2회초 선제 2점포를 때리고 다이아몬드를 돌아 덕아웃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관중석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였다. 경기 후 기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푸이그는 몇몇 관중이 자신에게 야유를 퍼부어 그들의 수준에 맞춰준 것이라고 답했다. 관중이 자신의 홈런과 세리머니에 야유를 해서

복수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만약 이런 행동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우리 법률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손가락 욕은 모욕에 해당

외국 영화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욕설이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열여덟’처럼. 의미도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욕일까? 명예훼손일까?

모욕은 타인에 대해 추상적인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다. 단순한 욕설이 전형적이다. 예를 들면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경우다. 물론 발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몸짓으로도 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사실을 명확히 지적해서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지난해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한다거나, ‘저 사람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다.

푸이그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동작을 통해 관중에게 경멸적 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관중을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에 대한 모욕죄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푸이그의 행동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푸이그도 몇몇 관중의 야유에 대해 복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모욕죄도 성립할까?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 여러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기자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경우와 ‘A사 기자들은 다 도둑놈이다’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앞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상이 너무 많다. 또 신문기자만 이야기하는지, 방송기자나 잡지기자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결국 그 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 뒤의 경우는 A사라고 그 대상이 특정돼 있다. 적게는 수명에서 아무리 많아도 수백명을 넘지 않는다. 그 대상이 그리 어렵지 않게 특징이 된다. 따라서 앞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뒤의 경우는 A사 기자들에 대한



LA 다저스 야시엘 푸이그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악동이다. 푸이그는 14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와의 원정 경기 2회초 선제 2점홈런을 치고 덕아웃으로 들어가다 프로그레시브 필드의 관중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해 물의를 빚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푸이그의 경우를 살펴보자. 자신에게 야유를 하는 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많은 관중 사이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푸이그의 행위가 관중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죄가 되지 않아도 징계는 된다!

KBL에선 5반칙으로 퇴장 당하던 한 외국인 선수가 손으로 돈을 세는 동작을 한 적이 있다. 이 경우는 명백히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

다. 그 동작이 자신에게 파울을 지적한 심판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징계도 받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푸이그는 손가락 욕으로 결국 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포츠에는 정정당당한 승부 외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경기장 안팎의 매너도 그 중 하나다. 그것은 선수도, 관중도 마찬가지다. 스포츠권, 사회생활이건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다.

편집 | 고정필 기자 ico@donga.com